

## 스포츠

## 프로축구 K리그 올스타전

## '클래식 vs 챌린지' 맞대결

6월 21일 서울 월드컵경기장

K리그의 클래식과 챌린지 올스타가 한판 승부를 벌인다.

오는 6월 21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3 K리그 올스타전이 1부 클래식 올스타와 2부 챌린지 올스타간의 맞대결로 진행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출범 30년 만에 도입된 1·2부 시스템을 기념하기 위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다윗'의 전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상주 상무 소속 선수 등 국가대표 출신 스타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고 1부 경험이 있는 광주 선수 등 막강 전력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각 구단에서 제출한 구단별 베스트 11을 토대로 후보군이 선정되며, 각 팀 감독과 주장이 선정한 베스트 11도 후보 선정에 반영된다.

후보선정위원회는 구단 제출 자료,

각 팀 감독 및 주장이 선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3시즌 평점, 위클리베스트 선정 횟수, 개인 기록을 반영해 각 팀별 후보 33명을 발표한다.

이후 K리그 홈페이지(www.kleague.com)와 네이버 모바일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팬투표를 통해 양팀의 베스트 11이 정된다. 올스타최종 명단은 후보선정위원회에서 추가 선수를 선정한 뒤 6월 13일 최종 발표된다.

올스타 경기 전에는 프로축구 출범 30주년을 기념한 K리그 레전드 식전 경기도 열린다.

44명을 후보로 한 레전드 투표는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며 올스타전을 앞둔 6월 20일 K리그 출범 3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레전드 베스트 11이 발표된다.

이날 공로상 수상, K리그 비전 선포식 등의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페거슨의 마지막 트로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13일(한국시간) 스완지시티와의 홈 고별전 종료후 20번째 프리미어리그 우승 트로피에 입맞춤을 하고 있다. 27년간 맨유를 이끈 퍼거슨 감독이 은퇴함에 따라 모예스(50) 감독이 7월 1일부터 신임 사령탑 임무를 맡게 된다. /연합뉴스

## 광주시체육회 김태균·동신대 한솔희 금메달

## 전국 핀수영 선수권대회

광주시체육회 김태균과 동신대 한솔희가 지난 11~12일 대구체고 수영장에서 열린 2013 인석배 경제제전 전국 종별 핀(fin)수영 선수권대회에서 금빛 물살을 같았다.

김태균은 남자일반부 무효 잠영 50m에서 출전해 14초52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호흡 잠영 50m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했다. 남자일반부 김예근(광주시체육회)은 표면 50m에서 16초81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여자 고등부 정은비(광주체육회)가 호흡 잠영(스쿠버 잠영) 400m에서 3분35초06로 은메달을, 김경

윤(광주체육고 2)이 표면 400m에서 3분43초09로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남자 대학부 한솔희(동신대)는 짹핀 200m 결승에서 1분46초45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짹핀 100m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한편 '핀수영'은 돌고래 고리(모노핀)나 오리발(짬핀) 같은 지느러미를 발에 신고 물 표면이나 수중에서 해 염체 누가 뻐는 격투는 종목이다. 표면 종목은 스노클을, 호흡 잠영은 공기탱크를 사용한 채 경기에 나선다. 현재 광주에는 총 14명(광주체육회 9·실업팀 5명)의 핀수영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장성 출신 태릉선수촌장에 큰 기대

## 최종삼 선수촌장 취임

한국 엘리트 체육의 요람인 태릉선수촌을 이끌게 된 최종삼(65·사진) 신임 선수촌장이 공식 취임했다.

대한체육회는 13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선수촌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2011년 1월부터 태릉선수촌을 맡아온 박종길(67) 제21대 선수촌장이 3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되자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최종삼 대한체육회 부회장을 새 선수

촌장에 선임했다. 최 선수촌장은 현역시절인 1971년 세계 선수권 대회 63kg급에서 동메달을 따내는

등 한국 유도의 간판선수로 활약했으며, 대한체육회 부회장과 동아시아 유도연맹 회장, 국가대표 감독 등을 역임했다. 은퇴 이후 단국대에서 석사, 명지대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으며, 1981년 응인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최 선수촌장은 취임사에서 "기

본에 충실했던 선수촌, 대한민국의

스포츠 선진국 진입에 초석이 되

는 선수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며 "선수, 지도자와 함께

호흡하며 각 경기단체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더 나은 훈련 환경

을 조성해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

을 발휘하도록 열성을 다하겠다"

/연합뉴스

고 밝혔다.

최 선수촌

장은 현역시

절인 1971년

세계 선수권

대회 63kg급

에서 동메달

을 차지했다.

한국 유도의 간판선수로 활약

했으며, 대한체육회 부회장과 동

아시아 유도연맹 회장, 국가대표

감독 등을 역임했다. 은퇴 이후 단

국대에서 석사, 명지대에서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으며, 1981년 응

인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최 선수촌장은 취임사에서 "기

본에 충실했던 선수촌, 대한민국의

스포츠 선진국 진입에 초석이 되

는 선수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며 "선수, 지도자와 함께

호흡하며 각 경기단체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더 나은 훈련 환경

을 조성해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

을 발휘하도록 열성을 다하겠다"

/연합뉴스

## 광주여대 안세진·전남체고 최미선

## 양궁 3관왕 명중

## 전국 남녀 양궁 종별 선수권

부 단체전에 나서 4047점을 쏴 2위 경기대(4016점)와 3위 안동대(3999점)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고등부 최미선은 703(335점)과 50m(336점) 경기에서 1위를 차지했고, 개인종합 4개거리(70m·60m·50m·30m)

에서도 144발 합계 1356점을 기록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소현(4년)은 개인종합에서 1351점을 은메달을 획득했다.

안세진은 지난 9~11일 경북 예천 김진호 양궁장에서 열린 제47회 전국 남녀 양궁 종별 선수권대회 여자 대학부 개인전 60m 경기에서 347점을 획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개인종합 4개거리(70m·60m·50m·30m)

에서도 144발 합계 1356점을 기록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소현(4년)은 개인종합에서 1351점을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안세진은 이소현(4년)·김소연(4년)·김혜진(1년)과 함께 여자대학부

부 단체전에 나서 4047점을 쏴 2위 경기대(4016점)와 3위 안동대(3999점)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고등부 최미선은 703(335점)과 50m(336점) 경기에서 1위를 차지했고, 개인종합 4개거리(70m·60m·50m·30m)

에서도 144발 합계 1356점을 기록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소현(4년)은 개인종합에서 1351점을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안세진은 이소현(4년)·김소연(4년)·김혜진(1년)과 함께 여자대학부

부 단체전에 불참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광주시체육회 김태균·동신대 한솔희 금메달

## 전국 핀수영 선수권대회

광주시체육회 김태균과 동신대 한솔희가 지난 11~12일 대구체고 수영장에서 열린 2013 인석배 경제제전 전국 종별 핀(fin)수영 선수권대회에서 금빛 물살을 같았다.

김태균은 남자일반부 무효 잠영 50m에서 출전해 14초52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호흡 잠영 50m에서도 동메달을 차지했다. 남자일반부 김예근(광주시체육회)은 표면 50m에서 16초81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여자 고등부 정은비(광주체육회)가 호흡 잠영(스쿠버 잠영) 400m에서 3분35초06로 은메달을, 김경

윤(광주체육고 2)이 표면 400m에서 3분43초09로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남자 대학부 한솔희(동신대)는 짹핀 200m 결승에서 1분46초45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짹핀 100m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한편 '핀수영'은 돌고래 고리(모노핀)나 오리발(짬핀) 같은 지느러미를 발에 신고 물 표면이나 수중에서 해 염체 누가 뻐는 격투는 종목이다.

표면 종목은 스노클을, 호흡 잠영은 공기탱크를 사용한 채 경기에 나선다. 현재 광주에는 총 14명(광주체육회 9·실업팀 5명)의 핀수영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국내 최초 행복마을 출범

## 2013년 도·농교류 협력사업 '행복마을 행복한 농촌체험'

## 도·농교류 협력사업은?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촌관광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활력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사단법인 행복마을협의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후원하는 2013년 도·농교류 협력사업으로 농어촌체험을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행복마을 일원에서 당일과 1박2일 총 20회에 거쳐 운영합니다.

홈페이지 : <http://www.happyvil.net> 참가문의 : 061)282-5327

의 연방출범 천상화원인 지리산 바레봉, 익주체육관 07:30, 광주여고 07:45, 비엔날레주차장 08:00

\*다음카페 광주방문여행 07:45, 바레봉 07:50, 백운봉로타리, 08:00, 교원공체회관 08:10

\*광주체육관 07:50, 문예예술관 07:55, 문예문화관 08:00, 동광주IC 08:10

\*다음카페 광주방문여행 08:00

\*다